

코스피지수 1,383.34 (-45.25)

코스닥지수 510.27 (-13.99)

금리(국고채 3년) 4.17% (-0.13)

원·달러 환율 1,268.40원 (+14.50)

※수치는 19일 기준 12일과 비교한 것임

# 광양제철 생산량 다시 늘린다

### 철강수요 회복 4고로 개보수 조기 마무리

### 중 車강관 가공센터 준공 등 정상화 총력

세계 철강 수요 급감으로 올 생산 목표를 15% 감축한 포스코 광양제철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 회복으로 철강수요가 늘면서 광양 4고로 개보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중국 차 강관 가공센터를 준공하는 등 연내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1일 "지난 3월 시작한 제4고로 개보수 공사를 다음달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광양제철은 이를 위해 지난 11월 제4고로의 '연와 정초식'을 갖고 고로의 안쪽 내화벽돌에 무사고와 성공 조업을 기원하는 문구를 써넣었다. 개보수가 거의 끝나 화입(火入)이 일반했음을 알리는 행사다.

광양 4호기 고로의 개·보수는 통상 가능한 지 10~15년이 되면 실시하는 정기보수다. 포스코는 애초에는 5월부터 7월까지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세계 경기침체로 철강업계도 대대적

감산에 들어가자 보수시기를 두 달 앞당겨 3월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생산목표로 작년보다 15% 줄어든 2천800만t을 제시한 바 있다. 보수가 끝나면 광양 4고로의 조강 생산능력은 기존 연 310만t에서 430만t으로 대폭 커진다.

포스코는 부진했던 상반기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생산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된다.

특히 4고로 보수 작업 마무리의 시기로 하반기 실적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지난 9일 '철의 날' 행사에서 "2분기가 가장 어려

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시사했고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여성 CEO포럼'에서는 "감산을 줄여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외 생산 설비 확충도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는 또 최근 중국 안후이성 우후시에서 연산 18만t 규모의 자동차 강관 가공센터인 '포스코-CW-PC' 준공했다. 센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생산한 코일 형태의 철강 재품을 납품 전에 고객요구에 맞춰 1차 가공하는 곳이다.

포스코측은 센터 준공을 계기로 연 10만t 이상 강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휘발유값 '고공행진'

전남 1,645.69원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가격이 1주일만에 2% 넘게 급등하는 등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 정보시스템 오픈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광주지역 주유소의 무연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 당 1천636.33원으로 1주일만에 2.04%인 32.84원이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도 l 당 1천421.14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2.82%인 39.04원이 급등했다.

전남지역 주유소의 무연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도 지난 주보다 l 당 19.26원 오른 1천645.69원으로 전국 평균(1천642.54원)보다 높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대형 IT 수출株보다

## 은행·건설 업종 눈독

오는 23~24일 열릴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 달러화 약세와 관련한 향후 추이를 가늠할 실마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달러화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나친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약세 기조가 다소 추축한 모습이었다. 이는 곧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에 약화라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지난주 국내증시는 외국인의 판매세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증시의 양대 동력인 수급과 펀더멘탈이 장애물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명쾌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펀더멘탈로만 보자면 최근의 급등세에 따른 부담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하다. 그러나 시장에선 '추가 상승이 기대는 되지'만 확인하고 움직이지'라는 쪽이 더 많아 보인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어도 양호한 수급만으로 주가가 유지는 흐름 또한 크게 흔들리지는 않

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수급을 좌우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미국채 수익률의 연이은 하락세에 따른 영향으로 판매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화 약세 흐름이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운 만큼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오히려 금주 FOMC회의를 계기로 달러화가 재차 약세로 방향을 잡아 나갈 경우 이들의 매수감도 또한 다시금 높아질 것이다.

결국, 한동안 지수의 움직임은 다소 답답한 행보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적 모멘텀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시장대응의 범위를 상당폭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IT 등 대형 수출기업들의 실적은 수출경기의 부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이후로는 원화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데 따른 희석효과도 불가피한 만큼 기대감보다는 일단 경계감을 유지하는 방어적인 시각에서 실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부담이 적은 은행이나 건설 등 내수 주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한다.

<박종모 국민연금연구원 광주지점장>

## 지역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 4월 수신고 3,500억 감소

### 고수익 찾아 비은행 몰려

은행에서 빠져 나간 돈이 고수익을 쫓아 비은행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1일 발표한 '4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단위농협과 신협 등 비은행기관의 여·수신 증가의 영향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대출)이 전월대비 각각 160억원과 1천86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금은행의 경우 전월에 비해 수신은 3천547억원이 줄어들어 수신 감소폭이 확대됐으며, 여신도 3월에는 전월대비 328억원 증가했으나 4월에는 132억원이 줄어들어 감소로 전환됐다.

특히 예금은행의 수신은 수시입출금 예금(3천824억원)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이 5천876억원이나 급감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지

속했다. 이는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 1월 연 4.26%에서 4월 2.86%로 3개월 만에 1.40%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예금은행에 들어오는 자금이 단기 자금화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4월중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3천707억원이 늘어 지난해 11월이후 증가세가 지속됐다.

예금은행의 수신금리 인하에 따른 반사효과로 단위농협(상호금융)에 2천869억원, 신협에 761억원이 몰리는데 월급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권사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도 135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여신은 예금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상황이 늘면서 132억원이 줄었지만 비은행기관은 소액 신용대출 증가로 인해 1천905억원이 늘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급리리 인하 비은행기관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은행권에 유입되는 자금도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단기자금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럭셔리 청바지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은 21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750개로 장식한 599만원의 프리미엄 청바지 등 다양한 고가의 청바지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국가산단 용지 내달부터 매입

국토해양부는 새로 출범하는 토지은행이 광주·전남 국가산단단지 용지 등 전국적으로 3천382만㎡를 올해 비축용 토지로 사들인다고 21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장애에 산업단지와 고

속도로·국도 등 공공 목적으로 쓸 땅을 미리 싸게 사들이다 필요할 때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광주·전남에서는 국가산단용지로 414만7천㎡가 첫 대상으로 선정돼 1천966억4천3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기로 하고 비축 대상 토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광산구 삼가동~함평군 월야면 일대 산단 조성 용지에 대한 매입 절차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또복권

(제34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13 14 33 34 43	2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454,095,800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553,376	29
3 5개 숫자 일치	1,467,331	1,177
4 4개 숫자 일치	61,517	56,149
5 3개 숫자 일치	5,000	924,123

### 팝콘복권

(제16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4조 659648
2	1억	2조 806023
3	1천만	3조 856202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3218
5	50만	각조 8349
6	2천	각조 33
		각조 57
		각조 51
7	1천	각조 8
		각조 2

## 법원 경매 부동산의 매각 공고

1. 경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권리관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순번	소재지	면적	용도	권리
1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	1,234㎡	주택용	소유권
2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2-2	567㎡	상업용	소유권
3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동 3-3	890㎡	주택용	소유권

2. 경매 절차, 기일, 낙찰금, 수수료 등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

3. 문의처: 법원 경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등)